#호텔식로비 #투트랙설계 #금리0.5%… 수주전 치열

신반포15차 재건축 두고 각축전

삼성물산, 유엔스튜디오와 협업
대림산업,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
호반건설, 이자금리 최대 6배 낮춰

삼성물산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삼성물산

대림산업 '아크로 하이드원' 조감도. /대림산업

호반건설 '신반포 호반써밋' 조감도.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앞두고 단지명을 제시하며 치열한 각축전에 돌입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의 6개동, 64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5년만에 수주에 도전한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에 래미안의 디자인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한다. 유엔스튜디오는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과 싱가포르 래플스 시티 등의 디자인을 선보인 업체다.

삼성물산은 우선 '래미안 원 펜타스' 단지 입구에 길이 150m 규모의 문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지 주차장 입구에는 호텔식의 드랍-오프 존을 적용한다. 호텔 로비 처럼 꾸며진 컨시어지와 대기공간을 꾸며 아이들의 등·하교나 손님 방문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드랍-오프 존은 각 동별 지하 1층 출입구에도 개별 설치한다.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림산업은 단지명으로 '아크로 하이드원'을 제안했다. 국내 제일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성장한 아크로와 유일한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의미하는 '디 원(The one)' 이 합쳐진 이름이다. 착공과 추후 업그레이드라는 '투트랙 설계' 전략도 도입한다. 외관은 커튼월룩과 5개 층 기단부에 19m 높이의 고급 석재를 적용하고, 복합 알루미늄 패널 등 최고급 외장재를 쓴 곡선 디자인과 스카이 브릿지, 측벽을 따라 스카이라운지까지 올라가는 경관 조명 디자인 등도 구현한다.

커뮤니티 시설은 루프 탑 라운지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룸, 스카이 컨퍼런스룸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 무인운영 시스템 등으로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호반건설 역시 '신반포 호반써밋'이란 단지명과 파격적인 수준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사업비 이자 금리조건(연 0.5%)이다. 연 1.9%를 제안한 삼성물산, 현재 CD금리(1.4%)를 감안한 대림산업(연 2.9%)과 비교해 최대 6배나 낮다.

우수한 재무 건전성·자금력, 지난 31년간 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단지를 짓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공사비 2390억원에 더해 현금 389억원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유예기간인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해야 했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한 숨 돌리게 된 셈이다.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 되면서 조합은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을 두고 혼선을 겪기도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비상상황 대체사업장 운영

김광수 회장, 서울 중구 사업장 방문
대체사업장, 인력 30% 이내 근무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NH농협생명빌딩에 마련된 농협금융 대체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중구 NH농협생명빌딩에 마련된 NH농협금융지주 대체사업장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후 사업장 폐쇄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체사업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를 완료했다.

NH농협금융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2월 말부터 재택근무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대체사업장 분리근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체사업장에는 금융지주 인력의 30% 이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대체사업장을 방문한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등 위기상황 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농협 본관 대강당, NH농협생명은 웨스트게이트빌딩(서대문)과 세종교육원(세종시), NH농협손해보험은 한경빌딩(충정로), 순화빌딩(순화동)에 각각 대체사업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3개월 연장

조합, 코로나19로 총회 개최 부담
국토부 내달까지 개정완료 계획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예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으며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이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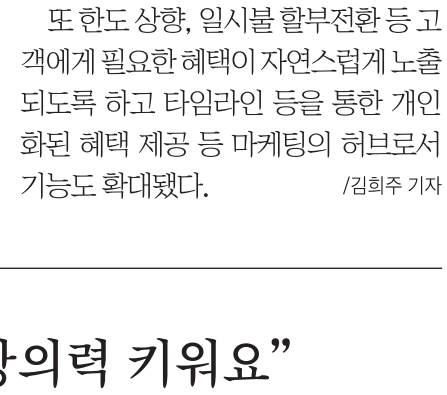
여기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조합과 각 지자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 요청이 쇄도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다 보니, 의결을 위해 1000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등도 마찬가지다.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합리적 소비 지원 '신한페이판' 전면 개편

신한카드 "종합플랫폼으로 진화"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완결된 서비스와 고객 개인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PayFAN(신한페이판)을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페이판은 가입고객 1200만명, 일평균 방문고객(DAU)이 100만명에 육박하며 월 이용금액만 9000억원이 넘는 국내 금융권의 대표 플랫폼이다. 이번 신한페이판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토탈 소비관리' 지원이다.

신한카드는 2018년 금융권 최초로 타임라인 서비스를 도입해 월 3억건의 승인데이터를 고객의 여정에 따라 리얼타임으로 배치해 소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토탈 소비관리를 도입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 계좌의 입·출금부터 증권사 거래내역, 전 카드사 이용내역까지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한 소비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결제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CS)와 개인화된 혜택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경험의 완결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명세서·결제 내역 조회, 한도 관리, 포인트 조회·사용 등 고객이 많이 찾는 서비스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신한카드 내 모든 앱과의 연결을 통해 원스탑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한도 상향, 일시불 할부전환 등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고 타임라인 등을 통한 개인화된 혜택 제공 등 마케팅의 허브로서 기능도 확대됐다. /김희주 기자

"곰곰TV 보며 아이 창의력 키워요"

삼성카드, 광고 없는 교육 콘텐츠

삼성카드는 유아교육 커뮤니티 서비스 '키즈곰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곰곰TV'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곰곰TV는 키즈곰곰의 캐릭터 곰곰이와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며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곰곰TV의 콘텐츠는 창의 질문을 바탕으로 선행학습, 질문, 연계 활동 순으로 구성돼 있다. 상업적인 광고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삼성카드는 곰곰TV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3일까지 본인의 SNS에 곰곰TV 영상을 공유한 인증샷을 키즈곰곰 앱(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모바일 쿠폰,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한편 키즈곰곰은 창의적이고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 유아교육과 관련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한다. 재미있는 그림과 기발한 질문으로 아이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의 대답을 멀티미디어로 저장해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